

# 유한양행, 연매출 2조 돌파... “임상·파이프라인 구축 집중”

‘렉라자’ 라이선스 수익 증가 영향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으로 美 진출 향후 연간 50억달러 매출 전망 YH35324로 기술수출 기대감 ↑

유한양행이 국내 정통 제약기업으로 처음 연간 매출 2조원을 돌파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약개발에 속도를 낸다.

1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은 지난 2024년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 2조67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규모다.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 줄었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480억원으로 64.3% 급감했다.

유한양행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 라이선스 수익이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 본사 전경. /유한양행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지난해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 렉라자가 미국 의약품 시

장에서 상업화되면서 유한양행은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으로부터 미국 출시 마일stones을 수령하게 됐다.

현재 렉라자 글로벌 개발 및 판매 권리는 존슨앤존슨이 갖고 있고, 유한양행은 한국에 대해서만 권리가 제한됐다.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향후 연간 50억달러(약 6조643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따른 마일stones 등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이처럼 유한양행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이 된 ‘렉라자’는 일찍이 유한양행이 기술수출한 물질이다.

유한양행은 지난 2015년 7월 미국 제노코사로부터 전임상 단계에 있는 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해 물질 최적화, 공정개발, 비임상 및 임상연구 등을 활발히 했다. 이후 2018년 11월 렉라자를 존슨앤존슨에 기술수출하고 후기 임상 단계를 완성하는 등 유한양행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유한양행은 렉라자 성공과 유사한 전략으로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기술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YH35324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를 비롯해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천식 등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 후보물질이다. 2020년 7월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 지아이이노베이션으로부터 도입됐고 최근에는 ‘YH35324’ 임상 1b상 결과가 공개됐다.

해당 임상에서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를 대상으로 YH35324와 ‘졸레어’의 약물 효과를 비교한 결과, YH35324 투여 환자의 증상 개선 효과가 졸레어 투여군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YH35324 경쟁 약물인 졸레어는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가 개발한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로, 글로벌 매출은 약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개발비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277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6억원 증가했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3% 수준으로 커졌다.

유한양행은 앞서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의 약 6%에 해당하는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066억원, 2022년 1071억원, 2023년 1199억원 등으로 유한양행은 연구개발비를 꾸준히 늘렸다. 유한양행은 기업가치 제고 방안으로 오는 2027년까지 매년 1건 이상의 기술수출, 매년 2개 이상 파이프라인 신규 임상 진입 등의 계획도 수립한 바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매출 개선과 이익 성장뿐 아니라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과 기업 가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전문 역량 지표인 임상 진입과 파이프라인 구축에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SK바사, WHO ‘사스 국제표준물질 연구’ 참여

유일한 민간기업으로 프로젝트 완료 면역원형 분석 등 핵심 역할 수행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한 ‘사스(SARS) 바이러스 국제표준물질 확립을 위한 공동연구’에 유일한 민간 기업으로 참여해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10월 글로벌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스 바이러스 국제표준물질을 발표했다. 국제표준물질은 백신의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 등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기준 물질이다. 국제표준물질이 없으면 백신 및 치료제의 유효성 검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제표준물질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면역원형 분석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들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를 진행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국제표준물질은 향후 전 세계 연구기관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국제백신연구소(IVI), 미국 식품의약국(FDA), 영국 영국 의약품 및 의료제품 규제청(MHR

A), 중국 식품의약품검정연구원(NIFDC) 등 글로벌 공중 보건을 선도하는 12개 보건 당국과 기관들이 함께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으로 국제기구와 연구 협력을 지속해 자사 기술력을 입증하고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미래 팬데믹 대응 프로젝트인 ‘100일 미션’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mRNA 백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GBP560’의 임상 1/2상 시험계획을 승인받는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 2022년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한 코로나19(SARS-CoV-2) 국제표준물질 확립 연구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한림대성심병원 ‘Mobile ICU’(왼쪽)와 일반 구급차.

## 한림대성심병원, ‘움직이는 중환자실’ 운영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출범식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5일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obile ICU)’ 출범식을 갖고, 중증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병원 간 이송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Mobile ICU는 중증환자 이송을 위해 특수 제작된 전담구급차로, 의료진이 차량 내에서 중환자실(ICU)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 ‘움직이는 중환자실’로 불린다. 한림대성심병원은 2024년 6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추진한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선정돼 2024년 11월부터 Mobile ICU를 운영하고 있다.

Mobile ICU는 일반 구급차보다 1.5

배 넓다. 내부에는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 인공호흡기, 환자 모니터링 장비, 고유량 산소치료기 등 중증환자 생명 유지를 위한 의료장비가 탑재돼 있다. 또한 일반 구급차보다 더 많은 내부 전력을 쓸 수 있고, 산소통도 일반 구급차에 비해 4배 이상 실을 수 있어 ECMO와 인공호흡기 동시 사용이 가능해 장거리 이송에도 적합하다. 출동 시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함께 탑승한다.

한림대성심병원은 향후 중증환자의 병원 간 이송뿐 아니라 재난 발생 시 현장 의료지원, 항공이송과 연계한 중증환자 이송 등으로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동아제약 충치·잇몸 관리해주는 검가드 엑스퍼트 치약

동아제약은 충치와 잇몸 질환 예방을 위한 ‘검가드 엑스퍼트 치약’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가드 엑스퍼트 치약’은 충치 예방 성분인 불소를 1450ppm 함유하고 있다. 기존 제품인 검가드 센서티브 치약 대비 불소 함량을 높였다. 잇몸 혈액순환을 돕고 민감해진 잇몸을 관리해주는 토크로폴아세테이트 성분도 포함한다.

카모마일추출물, 카란티라엑스, 녹차추출물 등은 친환경 성분으로 국제 유기농 공인인증기관인 에코서트와 미국 농무부(USDA)에서 인증을 받았다.

시원한 아쿠아 민트 향으로 상쾌한 느낌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동아제약은 이번 신제품 출시로 검가드 제품군을 확장해 잇몸 관리 전문 브랜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 삼성바이오, 수자원 관리분야 ‘A- 리더십’

CDP 평가서 ESG 역량 입증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로부터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A- 리더십’ 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CDP 평가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등과 함께 세계적 수준을 갖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표로 꼽힌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등 글로벌 빅 파마들이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목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야만 상위 등급 획득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CDP 평가 등급은 리더십(A- 또는 A)부터 관리(B- 또는 B), 인식(C- 또는 C), 공개(D- 또는 D) 순으로 분류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평가에서 자연자본전략 및 수질 오염 관리, 수자원 재이용 등 구체적인 목표 설정, 수자원의 취수·방류·소비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성 확보 등의 활동을 인정받으며 ESG 역량을 입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SG 경영에 집중해 왔다. 특히 지속가능한 시장 이니셔티브 ‘SMI’에서 공급망 분야 의장을 맡는 등 ESG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SMI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을 제시한 기업에만 수여하는 ‘테라 카르타 실’을 수상하기도 했다.

SMI는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 이후 영국 찰스 3세 국왕 주관으로 출범한 기후변화 대응 공동체다. /이청하 기자

## CJ올리브영, 초콜릿·향수 등 최대 43% 할인

‘밸런타인데이’ 맞이 행사 진행

CJ올리브영이 오는 16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초콜릿, 향수, 화장품 등 500여 종의 상품을 최대 43% 할인하는 ‘밸런타인데이’ 맞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밸런타인데이 선물로 인기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특히 온라인몰에서는 연인 선물, 베스트 선물, 달콤 선물, 향기 선물 등 4가지 주제로 소비자 수요를 충족한다는 방침이다.

올리브영은 뷰티 브랜드 ‘달바’의 하



‘밸런타인데이’ 맞이 행사 /CJ올리브영

이트 트러플 바이탈 스프레이 세럼, 자체 브랜드인 ‘아이디얼포맨’의 파퓰러 올인원 토트넘 핫스퍼 한정판 등을 이번 행사 대표 제품으로 내놓는다. 이밖에 밀카 버블리 초콜릿부터 섹스 퍼플 등 향수 제품까지 고객 선호도가 높은 제품들도 구성됐다. /이청하 기자